

2011. 3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출애굽기 · 레위기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2011. 3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출애굽기 · 레위기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3

2011
March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사도행전 1장	2 사도행전 2장
6 사도행전 6장	7 사도행전 7장	8 사도행전 8장	9 사도행전 9장
13 출애굽기 36장	14 출애굽기 37장	15 출애굽기 38장	16 출애굽기 39장
20 레위기 3장	21 레위기 4장	22 레위기 5장	23 레위기 6장
27 레위기 10장	28 레위기 11장	29 레위기 12장	30 레위기 13장

April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 사도행전 3장

4 사도행전 4장

5 사도행전 5장

교회 주요일정

3월 6일

제2차 성찬식

3월 9일

재의 수요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시작~4월 16일

10 사도행전 10장

11 출애굽기 34장

12 출애굽기 35장

17 출애굽기 40장

18 레위기 1장

19 레위기 2장

나의 주요일정

24 레위기 7장

25 레위기 8장

26 레위기 9장

31 레위기 14장

- 1 사순절기(3.9~4.23)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2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3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4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6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7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9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순간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

2011년 3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2002. 1. 1. 창간 100주년 기념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 찬송가 500장

누가는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증거에 이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증인의 삶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소수의 공동체를 다시 다독거리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것과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사역은 온 세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1~7장), 유대와 사마리아(8:1~11:18), 그리고 땅 끝(11:19~28:31)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세계 만방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매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3.9-4.23)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와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 찬송가 497장

2

수요일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이 강림한 그날은 세계의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한 주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그 일을 증언합니다(14~36절).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죽인 사실을 회개하고 이것을 믿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찢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었거나, 메시아를 죽이는 데 동조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3천 명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교제는 풍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의하여 내준 바 되셨으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실은 실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2:36)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일에 증언자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3장 · 찬송가 407장

얏은뱅이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주력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얏은뱅이 치유는 '예수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실재성을 나타내 줍니다. 얏은뱅이의 일로 놀란 무리들이 모두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할 자연스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이었음을 말하며 모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문을 연 새로운 시대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듯이, 불과 몇 달 전 예수님은 성의 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종말로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나움 입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은총을 가슴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 3:14~15)

기도제목

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 찬송가 202장

4

금요일

‘교회의 세워짐’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치유한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 그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이 물음을 일축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써 한 건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대답하였고 공회원들은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던 그들의 담대한 증거에 무척 놀랐습니다.

공회원들은 은밀히 의논한 후에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산헤드린의 명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19절). 공회원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관원들의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기도제목

① 너무나도 명확히 알려주신 그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 5장 · 찬송가 295장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서 전 재산을 교회 앞에 바친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죄목은 성령을 속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3절).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과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곧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분명히 가르치신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11절).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났고(12절 이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꺾박하며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 문을 열어주어 사도들은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38~39절)라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전하는 곳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이 체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행 5:41)

기도제목

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이름이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순절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력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되듯이 사순절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이번 수요일(3월 9일)부터 부활절(4월 24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입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1세기에 사순절은 단 40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40시간 있었던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는 6일간이 되었다가, 1년 365일의 십일조인 36일로 늘어났고, 731년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 때 4일이 추가되어 이후 40일로 정해졌습니다.

40이라는 숫자의 성경적 의미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마 4:2)하신 후 사역을 시작하셨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출 24:18).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간 금식(왕상 19:8)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민 14:33)을 받고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풍성한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니(화~주일, 04:50), 해당 교구식구들은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의례에 따른 사순절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초대교회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섬겨야 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사도들은 그 일을 다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찼습니다.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유대 땅에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고, 사도들은 이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태어나 그 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시급한 일 중의 하나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생겨났고, 사도들은 공평하게 이 일을 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2절)이 사도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4절)에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일곱 명의 집사들입니다. 교회의 일꾼인 이들의 자격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3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자격 조건에 부합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행 6:10)

기도제목

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깊이 묵상하는 제2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 찬송가 549장

7

월요일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일을 감당했으며 복음 전하는 일도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그를 모함했고, 그는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앞에 고소를 당합니다(6:8~15).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압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6:10).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담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흥분하여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56절)고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성밖으로 내친 후에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59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60절). 이 기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눅 23:34, 46).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행 7:55)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와 같은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 찬송가 520장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빌립의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26절). 가사 지방은 광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곳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권세 있는 내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당장은 합당하지 않아 보여도 늘 믿음으로써 순종해야 합니다. 그 내시는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31절)는 것이 그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복음을 받아 들이게 되었고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후에 에디오피아 전역, 아니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읽어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전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Yes! 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와 같은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행 8:26)

기도제목

①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순증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스데반의 순교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당연시했던 핍박자 사울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매우 의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닫혀 있던 강박한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포박하러 왔던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울은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15절).

당시 사울은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흑암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뜨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또한 이방인이며 영적인 흑암에 빠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음 증언자로 삼기 위함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행 9:4)

기도제목

① 주께 대적하던 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② 진심으로 회개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재의 수요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방인 고넬료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2절). 그런데 어느 날 고넬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로의 집에 도착하여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자세히 선포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고넬료가 왜 굳이 그런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9~16절)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표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증인으로 미리 정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믿으며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행 10:47)

기도제목

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를 말씀합니다.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 돌비를 마련하여 시내산에 오르게 하신 후(1~4절), 당신의 존재를 자상히 계시해 주셨고(5~7절), 약속의 땅을 재확인 시키시고(10절), 약속의 땅에 거하는 우상 숭배지들과 언약 세우는 것을 금지시키셨으며(11~17절), 각종 절기와 제사의 준행을 명하셨습니다(18~28절).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돌판을 다시 새겨 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 없는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언약 갱신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새로운 십계명 두 돌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거나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돌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실존입니다. 성령이 실존이면 동시에 언약의 돌판이 되신 예수님도 실존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실존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실존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출 34:24)

기도제목

① 언약의 돌판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삶에 머리부터 발 끝까지 넘치는 은총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으나 전하지 못했던 성막 건축에 관한 여러 내용들(25~31장)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사역에 앞서 깊이 기억해 두어야 할 안식일 준수 규례(1~3절)와 성막 건축에 소용될 각종 기물들을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쳐야 함(4~9절)과 지정된 위치에 따른 성막의 각종 기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0~19절).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온갖 예물들을 바침(20~29절)과 성막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부여되는 일(30~35절) 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사역은 단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순종함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성령에 의하여 마음이 감동된 자(21, 26절)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드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출 35:29)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진정한 생명의 빛



사순절 기간이다. 새벽 4시에 홍은동 주유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며 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서 자다보면 자정 이후로는 십오 분 간격으로 잠에서 깨곤 한다. 새벽 3시 40분에 집에서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찬송 테이프를 틀고 빈 새벽도로를 달려 갈 때면 내 마음은 어느새 길가 가로등의 불빛처럼 환해진다.

18년 전 나는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처음 참석함으로써 충현교회에 오게 되었다.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은 교회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기도예 목말라 있었던 나는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무작정 찾아갔는데 때마침 사순절 새벽기도 기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사십 일 동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였다. 성령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마 7:1~2)라는 말씀으로 나를 깊게 회개시키셨고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충현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드리는 나의 기도는 가족들과 함께 부활절 첫 예배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이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눈 먼 나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은 수난 당하심으로 남은 물 한 방울까지도 쏟아내셨을 때 예수님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셨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알몸이 되고 목숨을 빼앗겼을 때는 어떠한 것인가? 참혹하기만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빛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난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 그리고 총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시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김경희(권사, 17교구)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았으나(25~31장)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성막 건축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성막 건축을 맡은 일꾼 브살렐과 오홀리압 및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실(1~2절)과 백성들이 성막에 소용될 예물들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풍성히 바침으로써 예물 수납을 중단한 아름다운 장면(3~7절), 그리고 이미 26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막의 덮개인 네 양장과 널판과 간막이 휘장 등이 제작되는 장면(8~38절) 등을 말씀합니다. 앞선 성막의 식양이 계시된 내용(25~31장)은 모세의 주도하에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절대 의지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만큼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을 명하시며, 명령대로 할 때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쓰임을 받게 된 일에 감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출 36:7)

기도제목

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정결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속죄소

출애굽기 37장 · 찬송가 82장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임명하여 성막의 외형과 골격을 이루는 부분을 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36장) 성막 건축은 성막의 내부에 안치될 성물 제작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성막 기물 중 가장 핵심적인 언약궤(법궤)의 제작(1~9절)과 성소 북편에 안치될 진설병 상과 그에 딸린 대접, 순가락, 잔, 병 등의 제작(10~16절) 및 성소 내부를 밝혀줄 등잔대와 그에 딸린 불 집게, 불 뚝 그릇 등의 제작(17~24절), 분향단과 관유와 정결한 향 제작(25~30절)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 내부의 기물들은 하나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류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기물들이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성물들, 즉 진설병 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물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모셔둘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성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분향단에서 여호와께 향을 피운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중보자가 되시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바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막은 죄를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출 37:6)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의 희생

출애굽기 38장 · 찬송가 148장

15

화요일

이제 성막 뜰에 안치될 성물들과 또 성소의 테두리를 결정할 울타리가 제작됩니다. 제사에 있어 매우 긴요한 번제단과 그에 딸린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1~7절)와 성막 봉사를 담당한 제사장들의 의식적 정결을 위한 씻는 그릇인 놋 물두멍(30:17~21)과 성소와 외부를 구분할 울타리가 제작됩니다(8~20절).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성막 건축에 소요된 각종 기물과 그 기물을 가지고 제작에 참여한 일꾼들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가 소개됩니다(21~31절). 이처럼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들을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소개한 것은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정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해 두십니다.

번제단은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형성케 하는 용서와 화해와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인간의 공통적인 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죄의 문제가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 앞에 통곡의 눈물이 있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통곡하신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유다 지파 흠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출 38:22)

기도제목

① 우리의 죄 앞에 통곡의 눈물이 있는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성막 본체 제작으로(31장) 시작된 성막 건축 작업이 마침내 종결되고 있습니다. 앞 부분에서 성막과 성막의 내·외부에 안치될 각종 성물들이 제작되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명을 부여받은 대제사장이 착용할 복장(제사장들의 복장은 대제사장의 그것에 준하여 만들어졌을 것임)이 만들어지고(1~31절, 28:6~43), 그 직후 성막 건축의 두 주역이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위시하여 수고한 모든 일꾼들이 건축을 종결짓고, 그동안의 모든 경과와 결과들을 건축의 총감독이라 할 수 있는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32~43절). 성막 건축자들의 보고에서 살필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성막 건축의 모든 작업을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1,5,7,21,26,29,31~32,42~43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된 자의 삶의 기준이요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뉘그러고 더러운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찬란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세상의 누더기 옷을 부러워하여 누더기 옷을 걸친 자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출 39:1)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25~31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은 일꾼들에 의하여 성막 건축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어 마침내 한 점 실수 없이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35~39장). 이같은 성막 완성에 즈음하여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을 최종적으로 인정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봉헌식에서 준수해야 할 규례(1~11절)와 성막의 봉사자인 제사장의 성별과 기름 부음(12~16절), 성막의 완성과 봉헌식(17~33절) 및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준이 내려지는 장면들이(34~38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인 성막의 완공과 거룩한 인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저하시신 임마누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요 1:14). 우리는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우리는 때때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잊어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출 40:34)

기도제목

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약의 5대 제사 중 하나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바치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로 드리는 번제,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3~17절). 번제의 종류가 제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 것은 드리는 자의 경제적 형편을 배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번제를 드려 죄 사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축물의 크기가 아니라, 어떠한 생축물을 사용하여 번제를 드리든지 간에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3,10절).

헌제자는 희생동물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어 안수한 후에 희생동물을 직접 죽였습니다. 이는 헌제자가 제물을 친히 죽임으로써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헌신의 다짐을 고백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짐승을 보면서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반드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드려야 했습니다. 이 회막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번제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회막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회막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번제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레 1:4)

기도제목

① 우리의 죄를 위해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소제란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찢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의 예물은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가루만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는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곡식을 세밀하게 간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림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제의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11절). 왜냐하면 누룩과 꿀은 그 발효성 때문에 죄를 번지게 하는 것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룩과 꿀을 제한하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13절).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을 확실한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 이라고 말씀합니다(민 18:19).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성취하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신앙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매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레 2:11)

기도제목

① 언약의 소금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경건의 표상이라고 할만큼 대단한 종교인들이었다. 세리는 부패와 부정의 표상으로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류였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쪽으로 가서 두 손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세리가 기도한다. 그는 감히 제단 앞으로 가깝게 나가지 못하고 몸을 수그린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세리의 심정으로 우리는 사순절(3.9~4.23)을 지내야 한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은 사순절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사순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잘못 지키고 있다. 사순절이 되었으니까 평상시 좋아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오락을 삼가고, 안 나오던 새벽기도회까지 나온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무언가 절제하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 행위의 동기가 문제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를 부인하는 특별한 기간이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사순절

영광의 계절 - 영광의 계절

사순절은 자신의 어떤 경건한 종교적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간이 아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한다. 마음을 찢는 진심어린 회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오락, 음식 등의 어떤 행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다. 그동안 외식과 위선적으로 살아왔던,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죄성을 주님 앞에 낱알이 회개해야 한다. 평일과 주일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이중성을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 사순절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는 기간이다. 십자가 앞에 무릎꿇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멈추고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를 드리자.

사순절은 자신의 어떤 경건한 종교적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간이 아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한다. 마음을 찢는 진심어린 회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오락, 음식 등의 어떤 행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다. 그동안 외식과 위선적으로 살아왔던,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죄성을 주님 앞에 낱알이 회개해야 한다. 평일과 주일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이중성을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 사순절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는 기간이다. 십자가 앞에 무릎꿇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멈추고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를 드리자.

영광의 계절 - 영광의 계절

영광의 계절 - 영광의 계절



화목제

레위기 3장 · 찬송가 433장

화목제는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때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때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 제물은 헌제자와 제사장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기름을 제외한 부분은 헌제자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이들은 성막 뜰 안에서 이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과 인간 및 인간 상호 간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5절). 화목제는 번제와는 다른 제사인데 왜 화목 제물을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번제물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하므로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며 넘어지는 길, 쓰러지는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레 3:1)

기도제목

① 사순절 기간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 찬송가 272장

21

월요일

속죄제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1절)의 말씀과 같이 속죄제는 모세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시입니다.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규례는 제물에 따라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한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신분에 따라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1~12절),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13~21절), 족장을 위한 속죄제(22~26절), 평민을 위한 속죄제(27~35절)로 구분되었습니다.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20, 26, 31, 35절)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속죄제에는 값진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려고 이 세상의 어떤 제물보다 귀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레 4:35)

기도제목

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뼈 속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5장 · 찬송가 264장

속건제는 죄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제사로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의 성물을 범과했을 경우(14~16절)와 여호와와의 제명을 범했을 경우(17절),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6:1~7)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제사(번제, 소제, 화물제, 속죄제)와는 달리 배상의 성격이 특히 강합니다. 이는 속죄의 근본정신인 화해를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배상, 즉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속죄한즉 사함을 받게 합니다. 이 제사장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아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히 4:14).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위한 속건제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인간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이 비밀의 신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레 5:18)

기도제목

① 속건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제단 불을 꺼뜨리지 말라

레위기 6장 · 찬송가 183장

23

수요일

각 제사의 규례(1~5장)를 새로운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리한 것이 6장과 7장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의 규례(8~13절), 소제의 규례(14~18절),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특별 소제 규례(19~23절), 속죄제 규례(24~30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와 관련된 규례 가운데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9, 12~13절)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번거롭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제의였습니다. 원래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연결된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살전 5:19).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로 이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은 언제나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죄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막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지 자신을 살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며”(레 6:12)

기도제목

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화목제의 보충 규례

레위기 7장 · 찬송가 508장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 화목제사 후 공동식사에 관한 규례입니다(11~21절). 이 경우 부정한 자는 이 공동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동물의 피와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입니다(22~27절). 그리고 셋째,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한 규례입니다(28~34절).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이 받을 소득으로 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오직 맡겨진 거룩한 직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몫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제사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즐거운 제사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었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없었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우리는 화목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바치신 주님을 늘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화목한 우리는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화목케 하라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레 7:38)

기도제목

① 화목케 하라신 주의 말씀에 ‘곧’, 그리고 ‘다’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명령

레위기 8장 · 찬송가 494장

25

금요일

회막에서 거행될 제사의 규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1~7장), 회막에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을 성별하게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을 물로 정결케 한 뒤(6절)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7~9절) 거룩한 기름(관유)을 부어(12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위임 의식을 마친 모세는 이어 위임식 제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위임식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위임 의식에 앞서, 먼저 온 몸을 씻어내는 행위는 육체적인 부정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죄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제사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의 요구하심이 예수님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의 은총받을 역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속 사역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대며 조금 더 좋아보이는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레 8:13)

기도제목

①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7일 동안에 걸친 위임식 제사를 마친(8:33) 제사장들이 제8일째에 이르러 마침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첫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8~14절),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15~21절).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 없이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성도는 예배에 앞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1~4절).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이기에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바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삶까지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런 중보의 원리는 후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흠 없는 완전무결한 대제사장으로서(히 4:14~15)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중보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 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러한 중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벧전 2:9)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레 9:6)

기도제목

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39~423)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선교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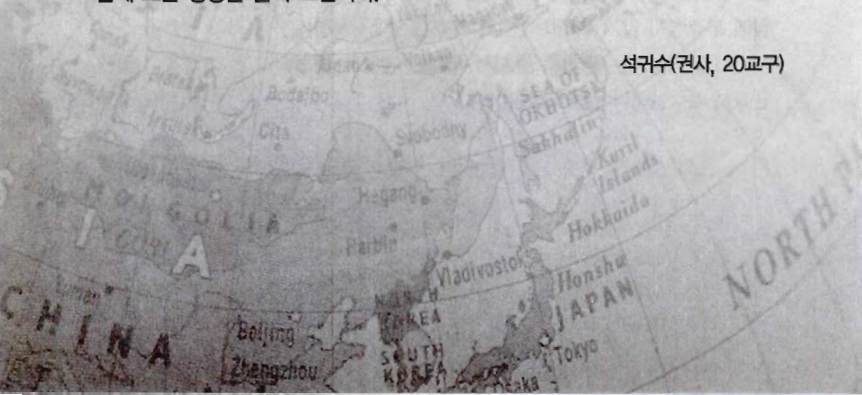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선교를 떠나기 전 저는 “왜 나일까? 왜 하필 나일 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 의문은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두 렵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 예화를 들며 “주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모세가 했던 것은 기도였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셨기에 모든 선교사역을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리라 생각하며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파송예배를 위해 새벽 3시부터 교회에 모여 팀기도회로 시작된 선교사역은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였고,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은 우리를 지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충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되며 우리를 보내놓고 기도하는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에는 평화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사역은 날마다 감동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힌두 사원에 가서 의식을 행하고 이마에 빨간 표를 받고 오는 남매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죄라고 말하자 즉시 이마의 표시를 지웠으며 우리의 주일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자전거에 발목을 다쳐 상처가 깊고 고열로 힘없이 누워있던 아이를 의사인 팀원 한 분이 치료해 준 후 기도하고 나왔는데 얼마 후 아이는 곧 일어나 앉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현지인 서너 명이 모인 곳에서 우리 팀원 11명이 현지어로 5번 정도 반복하여 찬양을 부르며 주위에는 어느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울동을 가르칠 때 주님은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우리 중에 섞여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주위에 교회가 없다고 하는 이에게 성경책을 주며 매일 읽으라고 권면하자 얼굴이 밝아지며 기뻐하는 모습도 보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선교는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이며 우리는 다만 주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1명의 팀원이 하나되어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기도의 힘이라 믿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선교팀을 위해 남아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이번 선교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석귀수(권사, 20교구)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레위기 10장 · 찬송가 435장

27

주일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첫 제사를 드리는 취임의 날에 여호와와 명령을 어기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단의 향을 사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여호와와 불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이나 뜻에 위배되는 예배나 헌신은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계 5:8). 우리는 기도나 헌금, 찬양, 헌신을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1~2절). 제사의 근본 정신은 결코 소의 피나 수양의 기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제사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는 모든 제사 행위는 여호와께가 증스러울 뿐입니다(사 1:11~13).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3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보다 앞세우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마치 어린 아이처럼 말씀이 인도하는 데까지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는 그곳에서 멈추는 ‘말씀 그대로의 삶’을 통해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레 10:1)

기도제목

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거룩할지이다

레위기 11장 · 찬송가 341장

11장부터 15장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정결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지침들을 말씀합니다. 정결법이란 음식, 출산, 질병, 각종 생활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의 여러 측면을 정결과 부정으로 규정하며, 부정하여졌을 경우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 지시한 의식법의 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장은 식생활에 관계된 규례로써 음식물에 있어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관한 엄격한 분류를 보여 줍니다. 짐승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1~8절), 물고기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9~12절), 조류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13~19절), 곤충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20~24절),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의 정하고 부정한 것(29~43절) 등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음식의 정·부정 규례를 만드신 것은, 평범한 일상의 성결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성결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44~45절). 하나님은 선민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하여 성별된 삶과 정화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하신 정결법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백성의 생명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불경건한 백성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은 정결하며 거룩한가? 질문하며 스스로를 성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이다"(레 11:45)

기도제목

①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순간에 정결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음식물에 대한 정·부정의 규례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12장에 이르러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 적용되는 규례를 세우십니다. 원래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뜻이었으나(창 1:28), 타락 이후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자녀의 출산이 고통과 수고의 일로 변하면서(창 3:16), 출산에 따른 분비물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결케 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아 산혈과 분비물로 더러워진 여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으며(1~5절), 부정기간이 끝난 후 정결의식을 치르고 난 후에야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6~8절). 정결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속죄제에는 빈부의 격차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예물에는 비록 그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속죄를 위한 대속 제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죄인이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정결의식에 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굴레를 벗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순간, 매초마다 주님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 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레 12:6)

기도제목

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사람 몸의 나병 진단 규례와 옷의 나병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은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나병(한센씨병)만이 아니라 증세가 심각한 각종 피부병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피부증세에 의한 나병 진단(1~8절), 난육(살이 썩어 들어가는 부위)에 의한 나병 진단(9~17절), 종기에 의한 나병 진단(18~23절), 화상에 의한 진단(24~28절), 나병자의 격리 규례(45~4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47~59절은 색점에 발한 의복의 나병 진단 및 처리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운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45절). 이것은 나병 환자에게 요구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롬 7:15~21). 그러나 율법은 그 이상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최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즉 죄와 그 대가로 주어지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제시하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나병은 영적인 죄의 치명성과 무서움을 철저히 깨달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나병과 같은 죄악에 감염된 우리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7:12~13) 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레 13:3)

기도제목

① 우리의 죄의 치명성과 무서움을 보게 하사 죄의 심각함을 깨닫으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정결하게 되는 날

레위기 14장 · 찬송가 259장

31

목요일

회복한 나병환자가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정결의식(1~32절)과 주택에 발생한 나병 증세를 다루는 방법(33~53절) 및 나병에 대한 결론(54~5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완치된 후 2차에 걸친 철저한 정결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1차는 백성이 거하는 진 밖에서 제사장의 집례 하에 나병의 완전한 소멸을 확인하고 정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1~9절). 제2차는 진 안으로 들어온 완치자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기다린 후 제8일째 되는 날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병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10~20절).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정과 죄악을 심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비록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요일 1:9).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죄악과 죽음의 상징인 나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정결의식은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 곳에 피를 일곱 번 뿌림으로써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의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히 9:22).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순간 우리의 영적상태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레 14:2)

기도제목

①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며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3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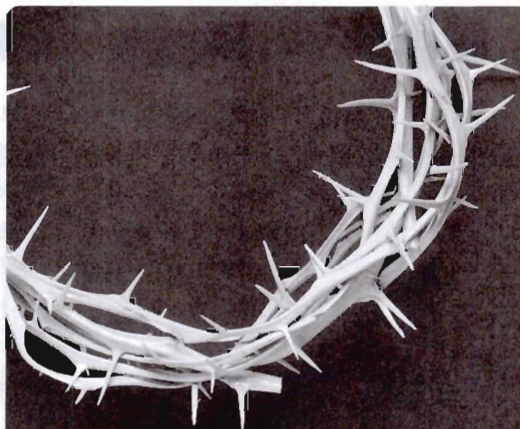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사신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간 예수님의 삶은 유대 사회의 빈곤함을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3년 간의 공생애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천국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가 합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

3월 4일 | 누가복음 22:14~20
주의 만찬과 유월절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3월 11일 | 로마서 12:2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승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3월 18일 | 갈라디아서 2:16~21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3월 25일 | 느헤미야 2:17~20
재건
회개를 통해서 재건될 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구역예배 진행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민 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 개

말 씬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 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1년 3월 4일

1 과

주의 만찬과 유월절

| 초점 |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누가복음 22:14~20

⁽¹⁴⁾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¹⁵⁾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 하였노라 ... ⁽¹⁶⁾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⁰⁾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눅 22:15)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적절한 때로 사용하실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 유월절 예식과 주의 만찬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요 1:36

고전 5:7

베드로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9)라고 말함으로써 유일무이하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성품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밝히고자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어린 양의 피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출 12:3

그들은 어린 양을 빨리 먹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니라”(출 12:11). 이 특별한 만찬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출 12:13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출 12:25~27). 오늘날 교회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레 받은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할레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출 12:44~49 /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_____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_____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레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_____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일 년에 세 번 지켰던 절기(신 16:16) 중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후에 유월절은 주의 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눅 22:16).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히 10:19~22 _____

새 만찬

예수 그리스도는 새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눅 22:19~20 /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_____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_____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 11:23~24).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딤후 2:10 _____

벧전 3:21 _____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들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식탁에서 떡과 잔을 취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고전 11:26

히 13:20~21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멋진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주의 만찬에 회개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2.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1년 3월 11일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 초점 |

승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 찬송 |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 본문 |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롬 12:2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23도 동일한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시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일들로 정신을 빼앗기게 될 때 겉길로 빠져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세상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의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합니다.

창 3:17

원래 세상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빛(태양, 달, 별), 식물, 동물(창 1:4,12,18,25,31) 등등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만물이 선하다고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세상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함을 잃고 악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요 1:29 ; 뱀전 1:5,19)?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초림 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행 10:42).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한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행 17:31). 모든 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계 20:12). 바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계 20:15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갈 1:4 _____

지금이 바로 은총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 7:19).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엡 2:1 _____

엡 2:4~5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선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진실로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죄악 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요일 5:4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 그의 구원을 받는다면 이 죄 많고 악한 세상과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본성을 바꾸십니다.

고후 5:17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갈등, 문제 또는 유혹으로부터 이끌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줍니다.

계 22:5

요 17:9,15,19

이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철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비록 우리가 악에 의해 둘러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롬 5:18

요일 3:9

모든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나의 방식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소서.
2.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3.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소서.

2011년 3월 18일

3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

| 초점 |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로 십자가의 값을 걷는다

| 찬송 |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본문 | 갈라디아서 2:16~21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떻게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의로움(칭의)과 거룩함(성화)의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과 그들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해 집니다.

롬 3:28

롬 5:1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문제에 대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강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받아 명예를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롬 3:23

※ 내가 왜 죄인인지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조상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 로마서 2:9~12 말씀을 정리하여 말해 보십시오.

롬 7:7,11~12

예수 그리스도 ■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 2:16 _____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의롭게 하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변호하여 줍니다.

갈 5:6 _____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행 10:34 _____

엡 6:9 _____

골 3:25 _____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갈 2:17~19

갈 3:24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율법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율법은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많은 교회가 믿음과 율법을 섞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율법을 전혀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갈 2:20~21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_____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_____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_____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무엇이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뿐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열쇠입니다.

롬 3:25

히 12:2

제발 인간의 의무를 강조하거나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들에게 의롭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의롭게 되고 거룩해 집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 믿음의 기도 |

1.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소서.

2011년 3월 25일

재 건

| 초점 |

회개를 통해서 재건될 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 찬송 |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본문 | 느에미야2:17~20

¹⁷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¹⁸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¹⁹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²⁰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러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유다 포로기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말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그 책임(술 말은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없는지를 증명하는 일을 담당함)과 영향력(가장 믿을만한 신하였기에 왕의 충실한 조언자가 되었음)이 막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왕에게 허락 받았습니다.

※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그가 포기한 것들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들과 장소는 깨어져 재건이 필요합니다. 교회들은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타락과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느헤미야와 같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느 1:4~5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때때로 재건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 기도가 항상 승리합니다.

느 2:4

막 9:29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스 8:23). 기도는 재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죄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느 1:6~7

느 1:11

죄의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죄의 회개는 자기 의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 6:5~7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재건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실천하라

우리는 새 일들을 실천함으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느 2:17~18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조롱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느 2:19

요 15:18~19

느헤미야의 사역은 변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역에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의 때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삶을 다시 드리십시오. 우울해지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십시오. 그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해집니다.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후 5:20

느 2:20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을 도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당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신앙이 재건되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매순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2.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재건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

⁽¹⁶⁾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¹⁷⁾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

⁽²¹⁾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16~21)

어떻게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의로움(칭의)과 거룩함(성화)의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과 그들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해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문제에 대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강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받아 명예를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 2:9~12).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조상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롬 7:7,11~12).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어떤 사람들도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의롭게 하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변호하여 줍니다. 갈라디아서 5:6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이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할 때 밝히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행 10:34).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상전들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엡 6:9). 하나님은 불성실한 종이나 불의한 주인도 편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골 3:25).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갈 2:17~19).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율법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율법은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많은 교회가 믿음과 율법을 섞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였기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21세기의 교회들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딜레마에 대한 대답은 율법 아래 우리 자신을 또 다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율법을 전혀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0~21)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발 인간의 의무를 실천하거나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들에게 의롭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의롭게 되고 거룩해집니다.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3월

Copyright©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